



기념촬영하는 우승자 이정민 18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CC에서 열린 PLK 퍼시픽링크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 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정민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2023 프로야구 4월1일 개막

2연전 폐지·AG 기간 중단 없어...3연전 편성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한화 이글스의 개막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2023시즌 KBO리그가 4월1일 개막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2023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KBO리그는 4월1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소화한다.

2연전이 폐지되면서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됐다. 이 경기들은 9월 10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 및 개막전 대전 5경기가 포함된 50경기(팀당 10경기)는 우선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들과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구단간 홈-원정 경기 편성도 기존 홈, 원정 각각 8경기씩에서 홈 9경기-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됐다.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된다. 2023년에는 SSG 랜더스·KT 위즈·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

스·한화 이글스가, 2024년에는 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가 홈 73경기를 운영한다.

개막전은 2021년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잠실 롯데-두산, 고척 한화-키움, 문학 KIA-SSG, 수원-KT, 대구 NC-삼성 2연전으로 2023시즌이 출발한다.

4위 LG는 2위 두산과 구장 중복으로 원정 경기가 편성되면서 6위 SSG의 홈 경기가 배치됐다.

5월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LG-두산), 고척(SSG-키움), 대전(KT-한화), 사직(삼성-롯데), 창원(KIA-NC) 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2023 KBO 올스타전은 7월15일 개최된다. 7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으로 쉬어간다. 9월 개최되는 황재우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도 KBO 정규시즌은 중단되지 않는다.

## 월드컵 본선 32개국 최종순위 '韓 16위'

아르헨티나 1·프랑스·2위...일본 9위

카타르 최하위...조별리그 탈락 독일 17위

국제 축구연맹(FIFA)이 19일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후 본선에 오른 32개국의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1~4위는 우승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3~4위전에서 맞붙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차지했다. 8강전에서 이들 4강 국가에 패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이 5~8위에 순위를 올렸다.

예선 조별 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올랐지만 16강 토너먼트 1차전에서 패배, 탈락한 16개국들은 각각 9~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는 크로아티아와 1대 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대 3으로 패한 일본이 9위로 가장 순

위가 높았는데, 브라질에 1대 4로 패한 한국은 16위로 본선 진출 16개국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다.

이들 8개국 순위는 일본, 세네갈, 호주, 스위스, 스페인, 미국, 폴란드, 한국 순이었다.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 16개국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17위에 올랐고, 3연패로 탈락한 카타르는 가장 낮은 32위였다.

32개국의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아르헨티나 2. 프랑스 3. 크로아티아 4. 모로코 5. 네덜란드 6. 잉글랜드 7. 브라질 8. 포르투갈 9. 일본 10. 세네갈 11. 호주 12. 스위스 13. 스페인 14. 미국 15. 폴란드 16. 한국 17. 독일 18. 에콰도르 19. 카메룬



지난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 라얀에서 열린 월드컵 H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 후 경기장 내에 모여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한국 선수들이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20. 우루과이 21. 튀니지 22. 멕시코 23. 벨기에 24. 가나 25. 사우디아라비아 26. 이란 27. 코스타리카 28. 덴

마크 29. 세르비아 30. 웨일스 31. 캐나다 32. 카타르 /뉴시스

### “내년 겨울 시장 흔들 수도” MLB닷컴, 이정후 조명

이정후, 해외 진출 도전 선언...현지 매체도 관심



KBO sensation may be wind beneath one team's wings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이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의 해외 진출 도전 소식을 전했다.

“이 KBO스타가 내년 겨울 FA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내년 겨울 빅리그로 건너갈 수 있는 이정후를 조명했다.

이정후는 전날(19일) 키움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2023시즌 뒤 해외 진출 도전의 뜻을 밝혔다.

2017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이정후는 2023시즌을 마치면 7년을 채워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 무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키움은 이정후의 포스팅을 허가할 전

망이다. 이정후의 해외 도전 소식은 곧바로 메이저리그로 전해졌다.

MLB닷컴은 “내년 겨울 시장에는 매니 마차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슈퍼스타 이정후도 나올 수 있다”며 “이정후는 내년 시즌이 끝난 뒤 메이저리그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 이종번인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로 불린다”며 “2022시즌 타율 0.349, 출루율 0.421, 장타율 0.575, 23홈런 113타점을 기록,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정후의 타격 능력은 더 자세히 짚었다.

매체는 “이정후는 올해 627타석에서 66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삼진은 32개만 당했다. 또한 통산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역대 KBO리그 타자 중 최고 타율(0.342)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확도 높은 타격을 주목했다.

이어 “힘, 콘택트 능력, 스트라이크존 대응 능력을 갖춘 타자로 KBO리그 출신 타자들이 빅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 미용고 나윤서 한·일학생사이클 3관왕



전남미용고 나윤서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2022 한·일국가대항 학생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3개 등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돔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에서 전남미용고 나윤서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3관왕·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대회는 한일 사이클 유망주 19세 이하 7명씩 선발됐으며 전남은 나윤서와 김채연이 이름을 올렸다.

나윤서는 스포르트경기에서 11초 836, 김채연이 11초 916의 기록으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경륜경기에서 나윤서가 12초 168로 금메달, 김채연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팀 스포르트 경기에서 나윤서와 김채연이 팀을 이뤄 출전해 47초 94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